

# 노을이 아름다운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 개장

귀어귀촌빌리지 이름 변경하고 정식 운영 돌입

10평형 8개동...오토카라반·글램핑과 같이 운영

함평군이 돌머리 해수욕장 귀어귀촌빌리지 지를 '하우스캠핑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20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돌머리 해수욕장 '하우스캠핑장'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

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인 '돌머리지구 어촌 뉴딜300사업' 8개 주요사업 중 하나로, 10평형 숙박시설 8개동으로 이루어져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맞는다. 이용료는 준성수기 시 주중 14만 원, 주말 16만 원, 성수기 시 주중 16만 원 주말 18만

원이며, 오토카라반, 글램핑과 같이 운영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돌머리 하우스캠핑장은 물론, 함평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해양 관광시설을 마음껏 이용하고 즐기셨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돌머리지구가 지역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세계 물의 날' 맞아 하천 정화 활동 나서

민관 170여 명 참여...무안천 일원 5km 정화, 물사랑 캠페인도 펼쳐

무안군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물사랑 캠페인과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모두의 실천 속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두가 함께 이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푸른무안21협의회 회원과 공무원 등 170여 명이 동참하여 물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물사랑 캠페인과 깨끗한 무안천 환경조성을 위해 약 5km 구간에 걸쳐 하천 주변의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며 정화 활동을 했다. 정현구 부군수는 "이번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며, "깨끗한 하천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삭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

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 기자

## "엄마, 아빠 나도 승마체험 할래요"

영암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자 4월3일까지 223명 모집

영암군은 4월 3일까지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승마는 동물 교감, 자세 교정, 야외 활동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복합 힐링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게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삼호읍 대불승마클럽에서 223명에게 각각 10회씩 체험할 기회를 준다. 190명을 모집하는 일반승마는 총 32만원 중 9만6,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8명과 25명을 각각 모집하는 생활승마와 재

활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다문화와 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비용 42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에서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영암군 가족행복과(470-1003)나 농축산유통과(470-2392)에 문의하면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영암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사업 참여자를 최종 선정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군 '닷', 황금빛 옷으로 화려하게 변신

암태 남강선착장 회전교차로에 실제 바다에서 사용되었던 닻 활용 조형물 설치

신안군은 암태 남강선착장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닻을 황금색으로 새롭게 단장시켰다. 군은 작년 12월, 2024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에 발맞춰 청정한 바다와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신안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실제로 바다에서 사용되었던 닻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암태면의 상징인 노란 아이리시와 팔금면의 황금빛 유채꽃의 색상을 입힌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도색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조형물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황금색으로 변신한 닻을 보면 부자가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지도읍 선도에서 열리는 수선화 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꽃축제가 개최될 것이다"라며, "닷은 신안을 찾는 많은 대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자연환경을 지켜가는 신안의 모습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영광 심 투어 운행

광주 유스퀘어·송정역에서 4월13일 출발

영광군의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인 '영광 심 투어'가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4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A(바다야), B(행복숲) 코스를 격주로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9시 30분, 광주 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10시에 출발한다. A코스(바다야)는 숲쟁이공원(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백수풍력발전단지, 영삼 백바위해수욕장, 영광 칠산타워 이고, B코스(행복숲)는 물무산행복숲 황톳길, 원불교 영산성지, 매간당 고택, 불

갑사를 운행하는 코스다. 영광 심 투어는 천년의 역사·문화·자연과 함께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코스로 운영되며, 중심은 영광굴비 한정식으로 제공되어 영광의 맛도 느껴볼 수 있다. 이용요금은 버스 탑승료·중식비·간식비 포함하여 30,000원이며, 만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이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